

일북 후 이태준 소설과 정치적 숨바꼭질

— 『첫 전투』 및 『고향길』을 중심으로 —

이재봉*

<차 례>

1. 문제제기
 2. 북한문학의 절대성과 이태준 문학의 상대성
 - 1) 북한문학의 주체 확립과 이념의 절대성
 - 2) 남·북한의 상대성과 이태준의 태도
 3. 예술성과 정치성, 그 사이의 숨바꼭질
 - 1) 감각적 묘사문장과 소설의 예술성
 - 2) 수령 형상의 약화와 이태준 소설의 정치성
 4. 맺음말
-

1. 문제제기

북한의 문학은 현실정치적인 흐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진행되어 왔다. 물론 사회주의에서의 문학예술이란 정치성을 강하게 띠 수 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북한의 경우 유별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전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ljbong@pusan.ac.kr).

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문학은 강력한 중심을 지향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김일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북한문학의 이러한 모습은 출발시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해방직후 북한의 공식적인 창작방법이었던 이른바 ‘고상한 리얼리즘’이 김일성의 연설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김일성이 ‘고상한’ 조선 사람의 전형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¹⁾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의 방향과 창작 방법에 김일성은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문학에서는 예술성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한에서의 문학이란 사회주의 체제 건설의 유용한 나사못이면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나 북한이라는 체제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작가의 경우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북한 정국의 흐름과 이와 보조를 같이하는 문학적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작가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 있음은 물론 정치적 숙청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이태준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태준은 식민지 시기 예술성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문인이다. 그렇지만 그는 해방 직후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를 찾아가고 ‘조선문학가동맹’의 핵심적인 인물로 역할함으로써 일제시기와는 다른 사상적 전향을 감행한다. 또한 그는 소련과 기석복 등의 도움으로 소

1) 안 막, 『민족예술과 민족문학 건설의 고상한 수준을 위하여』, 『문화전선』, 1947, 7쪽. 여기서 안 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창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의미의 고상한 조선사람의 전형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그것을 형성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 오늘날 새로운 조선문학에 있어 요구되는 새로운 긍정적 전형은 국가와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민주주의 조국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모든 낡은 구습과 침체성에서 벗어난 높은 민족적 자신과 민족적 자각을 가진 고상한 목표를 향하여 만단을 극복할 줄 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높은 창의와 재능을 발양하는 고독치 않고 배타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야말로 김일성장군께서 말씀하신 생기발랄한 민족적 품성을 가진 그러한 조선 사람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선영·김병민·김재용 편, 『현대북한문학 비평 자료집』, 태학사, 1993, 243쪽에서 재인용.

련을 여행하고 『소련기행』을 남겼으며, 『농토』, 『첫 전투』, 『고향길』 등의 작품집을 남겨 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분명히 해 나갔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도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월북 후의 이태준에 대한 연구가 <해방전후>, 『농토』, <먼지> 등의 소설과 『소련기행』 등에만 집중되는 현상은 이와 같은 연구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첫 전투』와 『고향길』 등의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 존재만 간혹 언급할 뿐 본격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예술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정치적 성향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증오'만 남아있다는 판단이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작가에게 마지막 작품 행위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 작품이 작가적 지향과 예술인식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작품들은 그 작가가 도달한 최후의 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태준처럼 북한에서 일차적 숙청의 대상이 된 문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태준을 비롯하여 임화 등의 숙청이 남로당이라는 정치적 집단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선입견이 되어 연구자들의 시야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태준의 숙청이 남로당과의 관계 때문이기만 했다면 그는 단지 정치적 패자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그의 마지막 작품들이 미군과 남한 정권에 대한 증오만을 보여 주고 있다면, 적어도 북한에서 이와 같은 요소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이런 작품들이 숙청을 정당화하는 빌미 중의 하나로 기능했다면 작품 속에 숨겨 놓은 그의 의식이 북한의 현실에서 문제성을 띤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는 물론 이태준의 작품만을 통시적으로 살핀다고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식민지 시기의 작품들과 비교해 보면 이태준의 정치적

지향은 해방 이후 갈수록 선명해졌고 이것이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해방 후 북한에서 이태준의 문학활동은 ‘북한문학’이라는 전제 하에 살펴야만 할 것이다. 북한에서 전개된 문학이 개별성을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태준의 작품 역시 ‘북한문학’이라는 틀 속에서 고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첫 전투』, 『고향길』 등의 작품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작품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이 빨치산 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군/적군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태준이 작품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하지 못했던 부분 역시 이 시기의 그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물론 이태준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가 말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는 어렵다. 비슷한 시기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이 글에서는 『첫 전투』와 『고향길』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아 월북 후 이태준 문학의 지향점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문학의 절대성과 이태준 문학의 상대성

1) 북한문학의 주체 확립과 이념의 절대성

북한에서 독자적인 문학론이 제기되고 이것이 창작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3월 25일 북조선문학예술총련맹(北朝鮮文學藝術總聯盟)의 결성에서부터이다. 인민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문화예술의 성립, 조선예술운동의 전국적 통일조직의 축성, 일제적, 봉건적, 민족반역적, 파쇼적 모든 반민주주의적 반동예술의 세력과 관념의 소탕 등을 강령으로 내걸고 출발한 북조선문학예술총련맹은 1946년 10월 13, 14일에 전체대회를 열어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다.²⁾ 이후 북한의 작가들은 새로운 사상을 교양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간형을 그려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이른바 ‘『응향』’ 사건은 북한문학의 지향점을 드러내 주는 상징적 사건이었고 이 때부터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김일성의 교시를 문학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다. 또한 ‘민주 개혁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사상적·정치적·예술적으로 고상한 작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1947년 1월의 김일성 신년사는 해방 후 북한의 공식적인 창작방법으로 채택된 ‘고상한 리얼리즘’의 근거가 되고 문학가들의 창작은 ‘조선 사람의 영웅적 노력과 투쟁과 승리와 영광을 고상한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그려야 하는 것으로 틀지워지게 된다.³⁾

이는 물론 김일성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른바 민주기지론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다. 민주기지론은 소련의 후원 아래 있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전반적으로 혁명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우선 민주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꾀하자는 논리⁴⁾이다. 뿐만 아니라 이 민주기지론은 1949년의 국토완정론⁵⁾으로 이어져 침략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민주기지론이란, 비민주라는 개념을 전제로 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는 논리이다. 여기서 민주/비민주의 이분법이 탄생하고 이는 다시 선/악의 이분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해방 후의 북한이 남한을 타자화하여 주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⁶⁾ 문제는 이와 같은 논리가 강력한 중심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다는 데 있다. 해

2)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문학연구』, 일지사, 1991, 67~80쪽.

3)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96~101쪽.

4) 김재용, 「민주기지론과 북한문학의 시원」,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3, 30~31쪽.

5) 이에 대해서는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 나남출판, 1996, 83~101쪽 참조.

6) 이 시기의 남한 역시 북한을 타자로 하여 주체를 형성해 나간 것은 마찬가지다.

방 직후 북한의 시에서 ‘수령’⁷⁾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전쟁시기에 일 반화 된 것⁸⁾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이분법을 내재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재단하는 절대 논리로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북한문학은 영웅 서사라는 신화적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특수성을 보여 준다.⁹⁾ 북한문학에서 진행된 거듭된 문인 숙청과 방향 전환은 이와 같은 논리의 극대화하는 방향성을 보여 준다. 이제 문학은 절대적 믿음 즉 신념의 문제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신념의 중심 대상으로 ‘수령’인 ‘김일성’이 자리하게 되고 그는 의심할 수 없는 절대성의 세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친구는 조선민족의 영명한 영도자 김일성장군에게 만공의 감사를 올린다.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二十개조정강이 발표되고 과업이 내릴때마다 김일성장군의 명철하신 영도력이 김친구의 가슴속에다 하늘하늘 건국의 불길을 이루어 주었다.

옳다 진정 옳다 어느법령 어느과업 하나가 조선인민의 이

7) “우리는 다시 봅니다/저마다 자기를 찾아/자기 곁으로 개선하신/친애로운 인민의 수령을!”(민병균, <장군을 맞던 날> 중), 선우상렬, 『광복 후 북한 현대문학 연구』, 역락, 2002, 41쪽에서 재인용.

8)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항일혁명문학에서 주체문학까지』, 평민사, 2000, 150쪽.

9) 이 점에서 신형기·오성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 현실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진리를 획득한 프롤레타리아는 근대의 믿음 속에서 고안된 주체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중심을 따르고 수렴되어야 하는 가운데, ‘과학’은 전제의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서 모든 가치는 일률적으로 재단된다. 자생적 집단화나 개별화를 허용하지 않는 결과는 전체주의였다. 그것은 절대적 권력에 의해 사회와 역사를 조작하려는 기도로 나타났다. 유물사관이 메시아주의로 전도되는 것은 이에 수반한 결과였다. 급기야 진리는 영웅신화와 뒤섞이고 신화 속에서 메시아는 군림한다. 문학 역시 신화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북한문학은 이런 길을 걸어왔다. 그것은 고통으로 가득찬 우리의 근대가 만든 또 다른 함정이었다.’ 신형기·오성호, 앞의 책, 51쪽.

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리지 않은 것이 있느냐 말이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라! 머리털을 비어 신을삼아 올려야 옳을가.

아니다 아니다 나는 오직 四七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책임수짜를 초과달성 함으로서 또 그정신과 기술과 창의성을 조국창건을 위해서 길이길이 살리는데서만 김일성장군의 은혜에 보답하리라!¹⁰⁾

1947년 발표된 이 작품에서 김일성은 곳곳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서사 내적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등장인물의 의식과 대화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나아가 편집자적 논평의 형태로도 개입하여 작품의 서사적 특성을 약화시켜 놓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은 ‘김진구’와 ‘이달호’라는 두 기계 노동자의 경쟁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다. 여기서 이달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개인적 욕망과 승부욕이 결과적으로 인민경제에 얼마나 큰 위해가 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작품의 기본적인 의도이다.

그러나 여기서 김진구와 이달호의 갈등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더욱이 김진구는 승부에 집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도 동료와 어울리지 않고 작업에만 매달리는 이달호의 승부욕을 근심하고 있다. 그같은 승부욕이 훼손할 수 없는 전체의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김진구를 이겨 최고의 기술자란 허명을 얻고 싶어하는 이달호의 사소한 경쟁심만이 이 작품의 유일한 갈등인데 상대자인 김진구는 오히려 이에 연연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내고 이달호의 잘못을 깨우쳐 준다.

그러므로 작품의 갈등구조는 서사를 이끌어갈 만한 긴장감을 조성하지 못한다. 갈등을 야기한 이달호를 포함하여, 모든 등장인물들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체제와 사상, 그리고 이를 이끌고 있는

10) 이복명, 「노동일가」, 『朝鮮文學』 창간호, 1947, 9쪽.

김일성의 절대적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를 제어하는 사상이나 신념 체계가 동일할 때, 운명의 변화를 동반하는 본질적인 서사를 기대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서사는 자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틈새를 ‘김일성’이라는 서사 외적 요소가 끊임없이 개입하게 된다.

게다가 김일성의 은혜가 ‘머리털을 비어 신을 삼아 올려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표현은 그 절대성의 세계를 유감 없이 보여준다.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의 세계, 한 치의 틈도 없는 완전한 진리의 세계, 조금도 부스러질 수 없는 완벽한 선(善)의 세계, 그것이 곧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이며 그 중심에 김일성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의 문학은 이러한 절대성의 세계를 토대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2) 남·북한의 상대성과 이태준의 태도

월북 후 이태준의 문학활동 역시 북한문학의 절대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실제로 이태준은 <해방전후>에서 이데올로기 선택의 행위를 보여 주었고, 『소련기행』, 『농토』 등에서는 자신의 이념적 행로를 드러내었으며, 『첫 전투』, 『고향길』 등의 작품집에서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태준의 문학활동 역시 북한의 현실정치적¹¹⁾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태준 문학의 정치적 행보는 북한의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함광은 ‘過去에있어 主로 弱한 人間 또는 人間의 弱한 面을 淸급’하던 이태준이 ‘장편<農土>에 있어서는 强한人間 人間의 强한 面에로 一大轉換’하여 ‘기쁜마음’이며 ‘<農土>는 氏自身에게 있어서는 內潛에서 外延에로의 確然한 一大巨步이며 美的表徵에 있어서는 값높은 進

11) 해방 후 이태준의 문학이 현실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은 필자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참고, 「해방기 이태준 소설 연구 —<해방전후> 및 <농토>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0, 58~67쪽.

步'¹²⁾라고 평한다. 또 한효는 이태준의 「호랑이 할머니」에서 미신만 좇던 호랑이 할머니가 문맹퇴치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마침내 인민 군대에 있는 손자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두고 '새로운 사회제도의 산물'¹³⁾이라 말하고 있다. 엄호석은 「고향길」을 두고 '절실한 주제의 선택과 예술적 형상에 있어서 자기 수준에 도달한 작품'이며 따라서 '해방 후 그의 어느 작품보다 우수한 작품'¹⁴⁾으로 평가한다. 또한 그는 『민주조선』에 발표된 「고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그만큼 좋은 작품으로 형상화되지는 못했지만 이 작품이 발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며 이 주제의 중요성에 착안한 작가 역시 경의에 가당'¹⁵⁾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발맞추어 이태준은 1951년 5월 '국기훈장 2급'을 받기도 한다.¹⁶⁾ 이와 같은 사실들은 월북 후 이태준의 문학적 행보가 정치적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월북 후의 이같은 문학적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쓰여진 작품들이 『첫 전투』, 『고향길』 등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고향길』에 수록된 작품들은 표제작인 「고향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쟁시기에 쓰여졌다는 점에서 미군과 이승만 정권에 더욱 선명한 적의를 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잔인하고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 연구자는 이들 작품을 두고 '이념이 예술성을 철저히 압도한 결과'이며 따라서 '이를 문학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¹⁷⁾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12) 安含光, 「尙虛 李泰俊氏를 論함 —長篇 農土를 읽고—」, 『朝鮮文學』, 1947. 2, 179쪽 및 195쪽.

13) 韓曉, 「보다 높은 成果를 향하여 —一九四九年度 小說界의 回顧」, 『文學藝術』, 1950. 1, 26쪽.

14) 엄호석, 「작가들의 사업과 정열」, 『문학예술』, 1951. 7, 76쪽.

15) 엄호석, 같은 글, 83쪽. 「고귀한 사람들」은 작품집 『고향길』에도 수록되어 있다.

16) 국기훈장 2급은 이기영, 이태준, 임화, 조기천, 최승희, 한설야, 황철 등이 수상했다. 『문학예술』, 1951. 5, 38~39쪽 참조.

17) 장영우, 「문학과 정치」, 『이태준문학연구』, 깊은 샘, 1993, 192~193쪽.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과 이태준의 문학이 북한문학과 갈등없이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태준과 함께 국기훈장 2급을 받았던 임화의 경우도 1952년 미제 스파이라는 죄명으로 일차적으로 숙청되었던 사실은 이 점을 증명한다. 더욱이 이태준의 경우 누구보다 문학의 예술성에 대한 자각이 깊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문학의 흐름과 일정한 갈등관계를 유지했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해방 후에도 의연히 처세만 하고 일하지 않는 덴 반대’하며 ‘혐의는커녕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일해야 될 민족의 가장 긴박한 시기’¹⁸⁾라는 이태준의 이데올로기 선택의 논리는 대단히 소박하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흔히 말하는 역사의 방향성이나 혁명적 열정 등은 끼어 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로당의 ‘8월 테제’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¹⁹⁾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련을 여행하면서 서울의 조선문학가동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여준 이태준의 기본적 태도는 ‘제도’에 대한 예찬이다. ‘인간성 최고의 것이 유물론의 사회에서 소생’되어 있는 소비에트의 현실은 ‘제도의 개혁’ 덕이며 ‘예술이 인간에 보다 크게 기여하려면 인간을 못살게 하는 제도개혁에부터 바쳐야’²⁰⁾ 한다는 인식이 소련을 여행하고 온 이태준의 모습이었다. 결과적으로 개혁 또는 혁명이란 ‘제도’의 문제이지 특정한 이념이나 인물의 절대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물론 제도의 개혁을 가능하게 한 이념이나 인물에 대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절대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이런 인식은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이던 스탈린을 그다지 언급하지 않는 데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사실 당시의 북한이나 북한문인

18) 이태준, 「해방전후」, 『이태준문학전집』 3, 깊은샘, 1995, 45쪽.

19) 장영우, 「문학과 정치」, 상허문학회, 『이태준문학연구』, 깊은샘, 1993, 172쪽.

20) 이태준, 「서울 문학가동맹 여러분께」, 『문학』 2, 1946. 11, 23쪽.

들에게 스탈린은 사회주의 조국의 대원수였으며 언제나 김일성 장군과 함께 이미 상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²¹⁾ 이로 미루어 보면 소련을 여행하고 난 뒤의 기행문에 스탈린에서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이한 현상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태준은 「소련기행」에서 인류의 진보와 평화를 가능하게 한 소련 제도에 대해 감탄하고 나아가 ‘소련기행을 총괄하면서 “제도의 승리”라고 평’²²⁾하고 있을 뿐 스탈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결국 그는 특징이념이나 인물의 위대성과 절대성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우위성을 확인한 것일 뿐이다. 더욱이 그가 확인한 제도 역시 상대적인 것이다.

생각하면 의의 깊은 전당이다. 단순히 쏘비에트연방의 의사장으로가 아니다. 인류가 가져본 사업 중에 가장 크고 웅은 사업의 기관실인 것이다.

우리 인류에게 혁명사나 건국사는 허다하되, 그 자유와 문화의 복리가 전 인류에게 미치며 전 인류의 영구한 평화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계획사회」의 출현은 여기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만강의 경의를 표해 웅은 것이다. 아직까지 인류가 경륜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 중에 여기처럼 근본적인 개혁에서, 이른바, 「인간이 철저한 의식을 갖고 그의 역사를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사회」는 다른 데 없으며 더욱 오늘 조선과 같은 민족이나 사회로서 웅은 국가건설을 하자면 어느 용도로 비쳐보

21) 앞에서 예로 든 이북명의 「노동일가」에서도 스탈린에 대한 예찬은 심심찮게 나타난다. ‘위대한 영도자이며 수령인 스탈린대원수 영도아래 자라가고있는 쏘련인민의 단결되고 조직된 애국심과 초인적 건설의욕을 우리는 배와야한다고 주장한다.’(이북명, 「노동일가」, 같은 책, 같은 곳)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스탈린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는 행사장의 모습이 북한 소설 곳곳에서 등장하고 스탈린이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식의 표현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2) 박헌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소설의 성격』, 소명출판, 1999, 274쪽.

나 운명적으로 결탁이 될 사회는 어디보다 여기이기 때문이다.²³⁾

위의 인용문은 모스크바에 들어가 맨 처음 구경한 소련의 의사당에 대한 소감을 술회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도 이태준은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련이 위대한 ‘계획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그래서 만강의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조선이 건설해야 할 사회도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철저한 의식을 갖고 그의 역사를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사회」는 다른 데 없다’라는 표현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회’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해방 후 정국에 깊숙히 관여하고 소련기행까지 했던 이태준의 입장에서 다른 사회를 사려깊이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곤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스스로 평양 중심의 민주기지론을 내면화해 가고 있던 그²⁴⁾가, 다른 사회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아낼 수 있을지는 더욱 확신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태도는 문제성을 떨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하겠다. 절대성이 구축되어 있는 사회에서 다른 사회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부터가 그것을 훼손할 수 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1950년 3월에 발표된 <먼지>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북과 이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각각의 정부를 세운다면 그것은 결국 분열이며 나아가 새로운 동족상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계²⁵⁾하는 작품

23) 이태준, 「소련기행」, 『이태준문학전집』 4, 51~52쪽.

24) 이 과정에 대해서는 김재용, 「월북 이후 이태준의 문학활동과 <먼지>의 문제성」,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3 참조.

25) 김재용의 앞의 글 참조. 박헌호 역시 “남북한의 노선이나 현실이 비록 현격한

이라는 평가가 내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태준이 당시의 상황에서 절대적 가치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통일정부의 수립이다. 그의 이런 생각은 ‘국토완정론’이 이미 표면화되어 있었던 당시 북한 상황을 감안할 때 문제성을 떨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당시 이태준이 민주기지를 내면화시켜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먼지>에서 한희 선생이 보여 준 남북한 체험과 비교는 꼼꼼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한희 선생은 북한이 선택한 체제가 옳은 것인 줄은 잘 알고 있다.²⁶⁾ 그럼에도 그는 남한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그러나…… 한편이 혼자만 지나쳐 나가는 거다. 통—되도록 남북이 화해되도록 그런 정세를 조장시키구 성숙시키는게 아니라 한쪽을 무시허구 저만 나가는 거다. 아모리 좋은 정책이라도 먼저 통—시키구 합잇것 전국적으로 실시험 좀 좋으나 말이다. 남의 발등을 밟고 먼저 자꼬 나가면 누군 남의 뒤나 따라가길 좋다냐? 그러니까 자꼬 엇나갈 밖에
……27)

한희 선생의 기본적인 인식은 위와 같다. 북한의 제도가 옳긴 하지만 북한만이 그것을 시행해서는 안 되며 분단이 고착화되어가는 당시의 상황에서 통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중요할 뿐 아니라 이것은 남북한이 합의해서 시행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또 북한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이 통일되지 못하고 각기 단독정부를 세워 분단을 고정화시킨다면 그것은 곧 민족상쟁의 비극을 초래할 것임을 비판”(박헌호, 앞의 책, 290쪽)하고 있는 작품이라 하여 김재용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26) 그것은 ‘一. 공사(公私)가 분명하여 실천력이 굳센 정치요, 二. 애국적이요 헌신적인 간부들이 하는 정치요 三. 노동자 농민이 사람대접을 받고 살 수 있는 정치요, 四. 누구의 자손이나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정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태준, <먼지>, 『문학예술』, 1950. 3, 53쪽)이다.

27) 이태준, <먼지>, 『문학예술』, 1950. 3, 62쪽.

이 먼저 나아가 버리는 것은 한쪽을 무시하는 것이고 발등을 밟는 행위라고 인식한다. 북한 역시 남한의 입장이나 상황을 ‘통일’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한뢰 선생은 생각하고 있다.

그런 그가 체험한 남한은 물론 지극히 야만적이다. 남한은, 미국에서 장사를 한 경험이 고작인 사람이 상공부장관이 되는 곳ियो, 죄진놈이나 살 곳이며, 총과 구두를 닦기 위해 귀중본을 수백 권이나 찢어 없애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누구나 병원이나 학교에 갈 수 있지만 남한에서는 돈 없으면 못 가는 곳이 병원과 학교요,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북한에 비해 순경이 일미터 간격으로 늘어서 있는 곳이 남한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한 말에 520원 하는 쌀값이 남한에서는 3,200원이나 하며 북한에서는 참외 하나에 3.4원이지만 남한에서는 40원이나 한다. 결국 모든 면에서 남한은 북한의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다.

한뢰 선생의 이같은 태도는 표면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본다면 한뢰 선생은 민주기지론이나 국토완정론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한뢰 선생은 남한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모리배의 전형적인 인물인 박교주의 집에 찾아갔다 봉변을 당한 후에는 자신이 지녔던 사상이 반동적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²⁸⁾

그렇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정작 중요한 것은

28) 다음을 보자. ‘(연암이나 완당께서 생존하셨다면 그 정의감들과 실학정신들이 좌익에 가담하고 말고! 가담이 아니라 일선에 나서 지도하실 어른들이지!) —중략— 한뢰 선생은 반청문(半淸門)께로 산등을 타고 거닐었다. 「유·엔 조선 위원단」이란 것이 드러와 있다는 덕수궁이며 리승만이가 미군정의 대를 물려 매국내각을 채리며 있는 경복궁이 손바닥처럼 내려다보인다. 근정전마당에는 미군숙사들이 빼국히 드러섰고 광화문통 넓은 길에는 미군들의 군용차가 개미떼 서물거리듯 한다. 그중에는 번질번질한 승용차도 섞이어 덕수궁으로 경복궁으로 뻗질날게 들락거린다. —중략— (이놈들아 또다시 일진회노름을 채린단 말이나!) 한뢰선생은 한눈은 봉대로 짜매고 한눈은 눈물에 글성해 자못 비장한 한숨을 쉬었다.’ (이태준, <면지>, 89~90쪽).

남한 사회를 보아야 하겠다는 한뢰 선생의 태도에 있다. 이 때문에 북한
 한의 우위는 남한과의 비교 우위일 뿐이다. 그래서 북한은 저 혼자만
 앞으로 나아가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세계가 공
 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긍정은 파멸로 치달을 수 있
 다는 것이 한뢰 선생의 생각이며 그의 이와 같은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의 형태로 현실화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의 이름이 왜 ‘한뢰’인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고서적 수집가이며 조선것과 옛것을 즐기어 아호까지 순
 조선 고어로 「한뢰」라 한²⁹⁾ 것³⁰⁾이라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한’에는
 ‘하나’, ‘같은’, ‘온전’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뢰는 ‘하
 나의 같고 온전한 산’이라는 뜻으로 풀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태준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보여주었던 인물과 유사한 성향의 인물을 설정한 사실
 을 넘어 자신의 특정한 신념을 ‘한뢰 선생’에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게 된다. 이런 태도에서라면 ‘이 곳을 경계로 하여 강토의
 한편에서는 조국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위대한 건설이 창조되고 있
 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매국노의 도량으로 쑥대밭
 이 되고 있다³¹⁾’는 식의 절대성이 투입할 수 있는 여지는 현저히 줄
 어든다.

한뢰 선생의 죽음 역시 이런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뢰 선생
 이 인민군의 총에 맞았느냐 미군의 총에 맞았느냐³¹⁾ 하는 것은 어찌
 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한뢰 선생이 죽

29) 이태준, <먼지>, 46쪽.

30) 이갑기, <두 세계>, 『문학예술』, 1950. 3., 95쪽.

31) 북한에서는 한뢰선생이 어느 쪽의 총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게 처리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한뢰선생은 분명히 미군의 카빈 총에 인민군
 의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용, 앞의 글, 149~
 150쪽 참조.

었다는 것이다. 남한의 실상을 확인하고 다시 월북하는 과정에서 그는 죽음을 맞는다. 만약 한파 선생에게 북한이 절대성을 띤 것이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 소설처럼 그는 성공적으로 월북한 뒤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의 대열에 나섰을 것이다.³²⁾ 결국 그의 죽음은 자신과 같은 입장이거나 사고가 남북한 어디에도 설자리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이 순간 북한에서 이태준의 숙청은 이미 예견된 것이 아닐까?

3. 예술성과 정치성, 그 사이의 숨바꼭질

1) 감각적 묘사문장과 소설의 예술성

북한문학의 흐름에서 상대적 입장을 암암리에 보여준 이태준은 마지막에 남겨 놓은 두 권의 소설집에 자신의 사고를 어떻게 표현하였을까.

사실 이태준 소설의 예술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자들에 의해 밝혀져 있다. 한국 단편소설의 완성자³³⁾라거나 우리나라 순수문학에서 소설계를 대표하는 최초의 기수³⁴⁾ 등 초기의 평가에서부터 이태준의 예술성은 높이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태준은 월북한 후 김일

32) 실제로 엄호석은 「노동계급의 형상과 미학상의 몇 가지 문제」(이선영·김병민·김재용 편, 『현대비평자료집』 3, 태학사, 1993)라는 글에서 ‘만일 이태준이 남반부 정세로서 한파 선생을 깨우치며 북반부의 인민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고치고 그 품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의도 밑에 그를 서울로 끌고 갔다면 그는 백번도 정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태준은 한파 선생으로 하여금 서울 네거리에서 단선 반대에 서명하기를 거절케 하였으며 북반부로 돌아오는 길에 38선에서 총살당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자신이 북반부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33)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364쪽.

34)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2, 243쪽.

성 대학의 교수인 정률로부터 조선의 모파상이라는 칭호를 듣기도 한다. 또 소련과의 중심인물이자 『로동신문』 주필인 기석복은 수차례에 걸쳐 조소문화협회 주최로 이태준 연구발표회를 마련³⁵⁾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이태준 소설의 예술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이태준 소설의 예술성은 그의 문학의 본질적인 면으로 탐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영채는 ‘직업적인 소설가 혹은 장인으로서의 예술가라는 위치’가 이태준 소설쓰기의 출발점이며 여기에 예술가 의식과 지사 의식이라는 두 가지 미의식이 교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식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하나를 배제하고 전면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해방이 지사 의식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³⁶⁾ 그의 태도는 이태준 문학을 지탱하는 기본 원리를 파악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요한 축의 하나가 예술성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단편에서는 예술성을, 장편에서는 사상성을 중시했다는 지적³⁷⁾도 이와 유사한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태준 소설의 예술성은 ‘문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의 『문장강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 또한 문장에 대한 애착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낸 바 있다. 그 중의 하나를 살펴보기로 하자.

35) 이병렬, 「이태준의 문학사적 위상」, 상허문학회, 『이태준문학연구』, 깊은샘, 1993, 28쪽 참조.

36) 서영채, 「두 개의 근대성과 처사 의식」, 상허문학회, 앞의 책, 55~61쪽, 85쪽 참조. 여기서 서영채는 “지사 의식이라는 심정적 진실은 예술가 의식을 제약하여 그것이 구극에가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또한 순수한 예술미의 추구라는 논리의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에게서 지사 의식이라는 심정적 진실의 형태로 현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제약하여 어느 한편도 즉자대자적인 이념의 차원으로, 곧 주관적인 심정과 객관의 논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상태를 이 글에서는 처사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76쪽)고 하여 이태준 소설의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37) 박현호, 『이태준과 한국근대소설의 성격』, 소명출판, 1999, 70~73쪽.

敎養水準이 一律的으로 높아가는 現代人은 너무나 똑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 무엇에나 自己의存在를 드러내려면 個性을 强作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고 또 個性과 個性의 交際처럼 現代人의 生活發展에 必要한것은 없다. 小說作家도 하구 많아졌다. 모다 똑같은作家들이라면 無意味하다. 自己色彩를 意識的으로 强調하는 作家가 작고늘어가며있고 그들의 獨特한 一家風이 아닌게 아니라 過去 小說에서 맛볼수 없는 맛을 내인다. 이맛이란 흔히 스타일, 文章에 들어있는것이다. 文章을 맛볼 줄 알아야 現代小說을 完全히 吟味하는것이라 볼 수 있다. 一중 략— 人物이나 事件(生活)을 붙잡으면 쓰는(文章)問題가 나온다. 여기도 問題는 複雜多端하다. 기중 根本的인 重要點만 한가지 말하려 한다. 美辭麗句가 소용없다. 高談峻論이 必要치 않다. 徹頭徹尾 描寫라야 한다. 說明的인 文句는 描寫에 自信이 없으니까 注釋하는것밖에 다른意義가 없다.³⁸⁾

위의 글에서 이태준은 소설의 맛은 문장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묘사에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태준의 문장과 묘사에 대한 연구자들의 평가 역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태준 소설이 지닌 예술성의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묘사적인 문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 『첫 전투』나 『고향길』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 논의의 초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한번은 불공을 하여 놈들의 치안대 본부와 이전 은행 자리였던 경찰대 본부와 이전 중학교 자리였던 미군 사령부 국기게양대에 갓은 신고의 끝에 공화국기도 달았었다. 一중 략— 그러나 이제도 소풍 나왔던 놈들이 물러가기 바쁘게 자기 몸 아픔도 죄 잊고 죽어라 싶은 마음으로 어둠 속을 게양대 향하여 또 기여 들어갔었다. 귀가 온통 항아리처럼 되고

38) 이태준, 「小說讀法 —小說에 關心하는 이를 爲하야」, 『女性』, 1938. 7, 51~52쪽.

호흡이 멈춰버린 형편이면서도 깃줄 올리고 내리는데 모든 목숨이 달린 듯 또는 그 깃줄에 마지막 자기 목숨을 걸 듯 기를 끝내 바꿔 달고 말았었다. 실로 그에게는 이 일도 남편이며 술한 남편의 동무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큰 일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과 함께 내 목숨만 아깝지 않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신념이 굳어진 것이었다.³⁹⁾

② 산은 드디어 대마루가 드러났다. 마루턱에 올라서는 것은 강물처럼 턱밑에 찰락거리는 안개바다에서 올라솟음이었다. 판세상으로 햇별이 눈부시었다. 안개는 골짜기마다 차고 산등성이들은 대마루를 타고 양편으로 드러나 반찬가시처럼 뻗어나갔다. 씻은 듯한 애청하늘에 오월달 금빛 태양은 참나무 박달나무 철쭉 목련 두릅 들의 연한 신록을 쓰다듬듯 고요히 내려쬘고 있었다.⁴⁰⁾

③ 길은 다음날 밤 중북선을 썰어 나가면서부터 소삼해지기 시작했다. 가시덤불은 장갑을 뚫고 새발은 키가 쑥 빠지며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 그 중에도 찌리발은 세찬 물결을 헤치고 헤엄쳐 나가듯 팔심을 뿔었다. 어찌다 아이나 석이 따러 다니는 사람들의 오솔길이 나오기도 하나 밤에 붙든 오솔길은 한포기 범부채 속에도 숨어버리었고, 발바닥 감촉으로 더듬어 찾으면 머루다래 덩불 속으로 사라졌다. 달빛조차 가리워버리는 아름드리 잡목들이 뻗뻗하니 느러선 사이에선 모두가 길 같고 모두가 길 같지 않기도 하였다.⁴¹⁾

위의 인용문들은 모두 빨치산 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 중의 일부이다. ①은 이기영에게서 ‘사상상 및 수법상의 눈부시고도 믿음성있는 발전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찬사⁴²⁾를 받은 적 있는 황건(黃健)의 작

39) 황건, <안해>, 『文學藝術』, 1951. 9, 13쪽.

40) 이태준, <첫 전투>, 『이태준문학전집3』, 깊은샘, 1995, 63쪽.

41) 이태준, <고향길>, 『고향길』, 재일본조선인 교육자동맹 문화부, 1952, 77쪽.

42) 이기영, 「小說家 黃健을 말함」, 『문학예술』, 1950. 4, 33쪽.

품이고 ②와 ③은 이태준의 작품이다. 물론 빨치산 투쟁을 소재로 한 문학은 전쟁 이전에도 북한문학의 한 원형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전쟁 시기의 빨치산 문학은 항일빨치산이 아니라 미군 및 국군을 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전투욕을 북돋우고 영웅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창작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쟁발발 일년의 시점에서, 작가 예술가들이 진행해온 문학예술 창조과정에서의 제반 부족점과 결함을 지적한 김일성의 격려사가 신문에 게재기도 했다.⁴³⁾ 이에 대해 김남천은 ‘작가 예술가들에게 돌리시는 이 깊은 배려’에 어느 작가나 감격하고 있다며, ‘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일년이 경과하도록 수령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조국과 인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에서 만족을 느낄 만한 이렇다할 창조적 성과도 건우지’ 못한 데 대한 ‘뼈저린 자기비판의 찻쭉’⁴⁴⁾으로 김일성의 격려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①에서와 같이 이데올로기나 사상성의 전달이 용이한 문장이 더욱 쉽게 선택될 수밖에 없다. 미군과 경찰의 주둔지에 태극기를 내리고 공화국기를 달기 위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탄실’의 눈에 주위의 다른 사물이 들어올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 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직선적인 문장이 일반적이다. 더 나아가 미군이나 국군의 만행을 폭로하고 투쟁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전혀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표현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기 창작된 이태준의 작품 역시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처럼 이태준의 작품에도 ‘놈의 눈깔 어웅한 상판’⁴⁵⁾

43) 김일성의 격려 내용을 김남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애국심의 표현, 민족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 인민군대의 영웅성, 완강성, 공화국 영웅의 형상화, 후방인민들의 투쟁모습, 원수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의 표현, 인민문학에 대한 연구, 비평정신의 제고, 조소 조중 천선의 형상화의 문제 또는 형식주의(형식주의의 오식 - 인용자) 자연주의 코스모뽀리찌즘과의 투쟁’, 김남천, 「장군의 말씀은 창조사업의 지침이다」, 『文學藝術』, 1951. 7, 46~47쪽.

44) 김남천, 위의 글, 46쪽.

45) 이태준, <백배 천배로>, 『고향길』, 4쪽.

같은 표현이나 피비린내 풍기는 어휘들이 적개심을 자극하며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위의 인용문 ②, ③과 같은 묘사적인 문장 역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②의 경우, ‘판돌’이라는 인물이 속한 빨치산 부대는 첫 번째 전투를 위하여 행군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판돌은 실전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거기다 예정된 기습계획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산마루에서의 안개와 그것을 뚫고 찬란하게 쏟아지는 햇빛이 ‘반찬가시’라는 비유를 얻어 구체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슬기를 머금고 반짝이는 온갖 나무들에까지 서술자의 시선이 닿아 있다.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아주 서정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장이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다.

③의 경우 칠복은, 유격전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령관의 명을 받고 고향 마을로 잠입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만큼 아주 작은 흔적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만큼 칠복은 극도로 긴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유격대의 기습공격 자체도 무산될 수 있다. 실제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적에게 들켜 총격전이 벌어지며 동행하던 ‘기훈’이 총을 맞아 죽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은 대단히 섬세하다. 특히 ‘밤에 붙든 오솔길은 한포기 범부채 속에도 숨어버렸다는 표현은 대단히 감각적일 뿐 아니라 표현의 구체성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첫 전투』와 『고향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⁴⁶⁾ 이와 같은 특징은 당시 북한 소설에서는 거의 찾기 어려운

46)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보자. ‘꽤 가파로운 비탈이면서도 쌓인 나뭇잎은 떡지가져 발등을 덮는다. 폭신한 감촉에 마음놓고 밟으면 속은 물기가 흥진해 미끄럽다. 앞선 동무들이 군데군데 미끄러져 시꺼먼 생흙 자국을 내었다. 어떤 자국에는 더덕과 송점초 따위 산나물 뿌리가 으스러졌다. 그런 데서는 싱그러운 한약 냄새가 풍겨 오른다.’(<첫 전투>, 앞의 책, 60쪽) 빨치산은 이동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이태, <남부군>, 두레, 1988, 55~57쪽)을 무시하고 본다면 이 표현 역시 대단히 참신하다. 구체적인 산나물의 이름과 이들이 자아내는 싱그러운 한약 냄새는 독자들의 감각을 민감하게 자극한다.

것으로 이태준 소설의 주요한 특징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와 같이 급박한 순간에도 이태준 소설에서 예술성은 곳곳에서 존재를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⁴⁷⁾

2) 수령 형상의 약화와 이태준 소설의 정치성

『첫 전투』와 『고향길』에서 이태준은 당시 북한문단에서 요구되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형상화해 놓고 있다.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물, 후방 인민의 투쟁이나 미국 또는 미군에 대한 적개심, 이승만 정권의 부도덕성과 소련 및 중국과의 친선, 빨치산 투쟁을 통한 영웅적 인물의 형상화 등 당시 북한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이태준 문학 역시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이태준 문학의 정치성은 이런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문학의 주도적 흐름과는 일정하게 배치되는 내용들을 이태준은 소설 속에 숨겨두고 있으며 이것이 이태준 문학의 정치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앞서 언급한 <먼지> 역시 이러한 경향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예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태준의 『첫 전투』와 『고향길』에서는 당시 북한문학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창작집 『첫 전투』와 『고향길』에 실린 작품은 모두 11편인데, 이 중 초기에 쓰여지고 발표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한 <해방전후>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10편이 남는 셈이다. 이 작품들은 1946년부터 1952년 사이에 쓰여졌고⁴⁸⁾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후기의 작

47) 물론 여기서, 이태준의 예술성이 숙청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북한 문학이 갖는 정치성과 현실 정치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그의 숙청에 관여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 문학의 주도적 흐름과 이태준의 소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의 예를 예술성에서도 찾아보고자 했다. 이 글의 제목을 ‘정치적 숨바꼭질’이라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48) 이들 작품이 쓰여진 시기는 각 작품의 말미에 표시되어 있다. 이를 개략적으

품으로 갈수록 극단적이고 잔인한 표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작품에서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미국(또는 미군)의 기만성 및 포악성, 야만성은 크게 부각⁴⁹⁾되어 있지만 국군이나 경찰의 야만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국군이나 경찰의 만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표현들은 이전에 쓰여진 이태준의 작품에 비하면 극단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잔인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 시기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김사량의 작품과 비교해 보자.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모시옷> - 1946년 8월 14일, <첫 전투> - 창작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다만 작품의 배경이 1948년 5월 10일 단독선거 실시 이후 10여일이 경과된 시점으로 되어 있다.), <호랑이 할머니> - 1946년 8월 14일, <38선 어느 지구에서> - 1949년 10월, 이상은 『첫 전투』(1949년 11월 발간)에 수록되어 있다. <백배 천배로> - 1951년 4월, <누가 굴복하는가 보자> - 1951년 4월, <미국대사관> - 1951년 5월 15일, <네거리엔 선 전신주> - 1951년 5월 5일, <고향길> - 1950년 5월, 이상은 『고향길』(1952년 11월 발간)에 수록되어 있다.

- 49) 예를 들어 『고향길』에 실려 있는 <백배 천배로>에서 ‘오기호’ 전사는 죽어가면서도 전화선을 확인하러 나온 미군 두 명을 사살한다. <누가 굴복하는가 보자>에서는 미 공군에 대한 적개심이 나타나 있다. <고귀한 사람들>에서는 ‘그 트루먼(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 - 인용자)녀석을 그저 죽지는 않게 한방 갈기 구 열흘만 물을 주지 말어 봤으면……’(『고향길』, 30쪽.)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적개심은 <미국대사관>의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건드렁 건드렁 낙하산에 달린 두놈의 다리는 늘어나는 것처럼 길게 드리웠다. 그것들이 나린 지점을 향하여 정치부 군관들이 달려갔을 때는 벌써 우리 전사 두 명이 한놈씩 깔고 앉아 초벌다짐을 하고 있었다. 놈들의 폭격 밑에 갇혀미워 고향과 동무들과 부모처자들의 참담한 죽음을 생각하면 원썩들 중에도 가장 치가 떨리던 원썩이 이 락하공군놈들이었다. 전사들은 이놈들을 죽인다치드라도 한방총탄으로 놈들의 목숨을 쉽게 끊어주고 싶지 않았다. 전사들은 힘은 들어도 놈들의 목숨이 덕심처럼 검질기기를 바랐고, 트루먼에서부터 애치슨 맥아더……모든 전쟁방화자들의 살과 뼈를 이 부들린 놈들이 대신해서라도 조선인민이 당하는 아픔을 골수 깊이 맛보도록 해주고 싶었다.’ <미국대사관>, 『고향길』, 20쪽.

① 영이가 몇 번만에 솟구어 트럭바퀴를 타고 엄마실린 트럭란간에 매달렸다. 한놈이

「요놈의 독종들아!」

하더니 징박한 구둣발로 영이의 발발 떨어 매달린 그 코뿔은 열손가락을 내려쥔다. 으악하고 영이는 떨어졌다. 영이 엄마는 악물었던 입으로 놈의 면상에 피를 뿜었다.

「이 개만도 못한 놈들아 두고 불테다!」

「뭐야 이년?」

상판에 뿜 피를 닦으며 놈들은 영이 엄마에게 발길을 질렀고 아랫말로 내려갔던 다른 두놈은 석범이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동생을 묶어 나타냈다. 역시 나무토막 다루듯 트럭 위에 올려던진다. 트럭이 웅 소리를 지르며 움직이려는 것을 보자 영이는 피 흐르는 손으로 운전대로 올라가려는 나중 한녀석의 다리를 끄러안었다. 그놈은 두 번이나 다리를 뿌리쳐 보다가 그래도 놓지 않으니 들었던 그 무지한 엠원총개머리로 영이의 눈물과 흙이 뒤잡을 한 생선처럼 벌렁거이는 가슴을 이를 악물고 내리쳤다. 제놈도 꿈쩍스러운 듯 돌아보지 않고 운전대로 올라가 문을 철컹 닫아버린다.⁵⁰⁾

② 「……놈들은 순직한 애국처녀들을 라체로 벗겨 거리로 끌고다니다가는 젖을 짤라 죽이며 수 많은 어린 아동들의 눈을 빼고 혀를 꿰어 죽이며……어찌 그뿐이라……」

영감은 손등으로 콧물을 훔치며 숨길을 돌린 뒤에 「어찌 이뿐이라!」고 또한번 비감한 목소리로 되뇌이더니

「배를 갈라 죽인 애국자의 시체를 시가지 한복판에 내놓고서 가고 오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전람시키며 애국자의 목을 말굽뼈에 달라매고 길거리를 끌고다니며 결박한 투사를 창고에 가두어 넣고 굶주린 맹견으로 하여금 뜯어먹게 하는등」 어떤 비장한 고담책이라도 읽듯이 이렇게 목이 매어 읽어내는 두터운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⁵¹⁾

50) 이태준, <고향길>, 『고향길』, 114~115쪽.

이태준의 <고향길>(인용문 ①)은 1952년 11월에 발간된 『고향길』에 수록되어 있지만 작품의 말미에는 1950년 5월로 날짜가 명기되어 있고, 김사량의 <대오는 태양을 향하여>(인용문 ②)는 1950년 4월에 발표된 작품이다. 그런데 이태준의 경우 국군의 야만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은 <고향길>의 이 부분 이외에는 찾기 어렵다. 물론 국군의 총 개머리판에 맞아 무참하게 죽어가는 딸을, 임무를 망칠 수 없어 숨어서 지켜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다. 한 연구자의 표현대로 ‘훼손의 시대에 대한 극단의 자기연민과 분노를 표현’⁵²⁾한 것이기는 해도 인용문 ②의 잔인성에 비해볼 때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더욱이 영이를 죽이는 경찰이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도 잔인함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작가의 작품들에서 국군이나 경찰은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그래야만 그들의 잔인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고 아울러 인민대중의 복수심을 극도로 자극할 수 있을 것이며 ‘누렁개’ 등으로 표현되며 미군의 꼭두각시로만 그려져 있기 일췌인 국군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허용되지 않는 처절한 복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시의 북한 소설에서는 민간인을 거리낌없이 학살하는 모습조차 지극히 정당하고 통쾌한 행위로 미화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더러운 년 개년……”

금주의 입에서는 문뜩 이런 욕이 튀어 나왔다. 그러자 어느 틈엔가 김동무가 들러맸던 카-빙총을 그 여자의 가슴에 갖다 댔다.

“미국놈이 그렇게도 좋은 너희들이니 미국놈의 총알도 맘에 들테지.”

총소리와 함께 빠드러지는 여자의 밍쌀스러운 모습에서 금

51) 김사량, <대오는 태양을 향하여>, 『문학예술』, 1950. 4, 59~60쪽.

52) 신행기·오성호, 『북한문학사』, 116쪽.

주는 아까 마루턱에서 느끼었던 것과 똑같은 통쾌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⁵³⁾

그러나 이태준의 작품에서 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복수는 찾아보기 어렵다. <첫 전투>에서 ‘칠복’은 자신의 동료들을 죽인 반동 부르주아 ‘정운조’를 붙잡아 인민재판의 형식으로 처단하긴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은 맹목적인 복수심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지금까지 억눌려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정운조’의 인민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는다. ‘칠복’은 복수심과 적개심을 대중적으로 고양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태준의 작품들에서는 미군이나 국군의 비겁함을 강조하여 영웅적이고 낭만적인 투쟁심을 고양하는 표현도 찾기 어렵다. 예컨대 총을 전혀 쓸 줄도 모르고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날 창만 들고 소리를 지르자 총을 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미군들은 겁이 많고 비겁하다거나, 총이라고는 한 번도 다루어 본 적 없는 중대장이 간단하게 미국 경찰병 두 명을 처치해 버리는 식의 무모하달 수도 있는 모습⁵⁴⁾을 이태준은 보여주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의 북한문학에서 당 간부는 절대적인 존재로

53) 한효, <서울사람들(2)>, 『문학예술』, 1951. 9, 33쪽. 아래와 같은 구절도 마찬가지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유·엔군 환영」이라 쓴 부랑카-트가 보이고 만세 소리가 들려 왔다. 분명히 반동들의 데모였다. “개자식들” 오동무는 저도 모르게 이가 부르득 갈렸다. 그러곤 금시 그리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먼저 오동무가 내닫기 시작했다. 그 뒤를 또한 기욕이가 따랐다. —중 략— 그 수염과 이맛대기가 이상하게 최목사를 연상시키며 기욕의 중요감을 자극했다. 불현 듯 원수들에게 학살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수와 그리고 어린 조카의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다. “복수다” 이런 가슴에 참을 수 없는 복수심이 불붙어 올랐다. 방우쇠를 잡은 바른 손이 바르르 떨린다고 의식한 순간 총박쑥이 바른쪽 어깨를 쿵 밀어젖혔다. 총소리와 거의 같이 번대머리가 가슴을 움키고 앞으로 쿵 엎어졌다.’(같은 책, 37~38쪽).

54) 한효, <서울사람들(1)>, 『문학예술』, 1951. 8., 8~9쪽. 및 13쪽.

형상화된다는 점이다. 당 간부는, 때로는 어머니 같이 자애롭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언제나 정확한 판단으로 대중들을 이끌어 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전투가 끝났을 때마다 혹은 행군이 끝났을 때마다 찾아오는 책임자들 윤오와 상도와 전체 대원들은 책임자에 대한 친애감도 친애감이려니와 그보다 우리 전체 인민들 앞에 있는 위대한 당과 만청의 거대하고도 따뜻한 힘을 믿게 되어서, 이러한 때는 입에서 내서 말하는 것보다 제 가슴 속 깊이 느껴지는 행복감에 말이 없어도 좋은 것이었다. —중략— 상부의 명령도 기다리자.... 매개 전투에서 경험한 것이지만 상부의 명령은 정확했고 바위 같이 믿어운 일이었다.⁵⁵⁾

그러나 『첫 전투』나 『고향길』에서 이태준은 이런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상부의 명령을 은연중 못마땅해 하는 태도를 보여주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추락하여 포로가 된 미군포로를 감시하라는 명을 받은 통신병이 ‘젠장 내가 감악소 간수란 말인가? 이간나새끼들을 살려가지구 고수수대니게.....체! 빨리 앞서라 한방 갈기기 전에.....’⁵⁶⁾라고 내뱉는 모습은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부의 전략적 판단보다 자신의 적개심을 더욱 앞세우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까지 하다.

이태준 문학의 이와 같은 특징은 필연적으로 ‘당’과 ‘수령’의 형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김일성이 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시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 전투』 및 『고향길』에서 김일성이 언급되는 것조차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집들에서 김일성이 언급되는 작품은 4편 5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55) 강형구, <림진강>, 『문학예술』, 1951. 10, 7~13쪽.

56) 이태준, <미국대사관>, 『고향길』, 24쪽.

① 김일성 장군 부대는 그놈들과 사람 수가 맞아서 싸웠소?

우리두 인민위원회가 생겼었구 우리두 쏘련의 선진사상과 김일성 장군의 영도대루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을 못한 게 아니드랬소. <첫 전투>

② 너 우리 김장군 더러 뵈었겠구나. <호랑이 할머니>

③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며 김일성 수상의 초상과 펄럭이는 공화국기도 떠올랐다. <38선 어느 지구에서>

④ 아니 김일성 장군께서두 축지술을 헐다 둔갑술을 헐다, 여간만 소문났더랬수. <고향길>

(강조 - 인용자)

해방 후의 북한문학에서 김일성이 무시로 등장하는 것은 이 글의 II장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만큼 당시의 북한문학에서 김일성은 서사 내·외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이다. 특히한 연구자는 해방 후의 북한문학에서 김일성의 영웅적 형상을 ‘설화적 구도’⁵⁷⁾로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의 인용에서 보듯 이태준의 작품에서 김일성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태준의 작품에서 김일성은, ‘김일성 장군, 김장군, 김일성 수상’ 등으로 지칭되면서 아주 잠깐 모습을 보였다가 금방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다. 이런 부분만으로 당시 북한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던 김일성의 영웅적 면모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고향길>에서는 김일성의 영웅성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여준다.

“흥 그렇게만 아슈! 정치위원두 옛날 이야기는 인민들의 창조라구 무시해선 안된다구 안 그러디까? 또 어디 옛날뿐이우?”

57) 신형기, 『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218~219쪽. 여기서 신형기는 한설야의 작품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논지를 펼치고 있다.

“그럼 요즘두 누가 축지술을 한다던가?”

“아니 김일성장군께서두 축지술을 한다, 둔갑술을 한다, 여
만간 소문났더랬수?”

“그게여! 그거라니까 바루……”

칠복은 편뜻 생각은 돌았으나 말문이 풀리지 않아 더듬거
리었다.

“그게라니?”

“바루 그게여……뭐든지 말이여……보통 사람 이상 능숙해
지면 보통사람에겐 귀신처럼 뵈는 법이거던……이쪽이 칠때
는 작전계획이 탁월했구, 이쪽이 포위됐을 땐 끝까지 냉정한
정세판단으로 저놈들은 몰라두 이쪽에선 저놈들의 허술한 고
아릴 그에 찾아내 거길 뚫고 나왔지 다르게 무얼테여……”⁵⁸⁾

영웅서사의 설화적 구도에서 축지술이나 둔갑술은 자연스런 것이
다. 특히 한설야가 <혈로>를 통해 ‘독자에게 전설의 사실적 객관화를
유도하는 창작의 직접적인 기법’을 중심으로 하고 ‘몇 가지 에피소드
(어린 장군 이야기, 행군 중 낚시 이야기와 두문동의 꿈 이야기 등)를
보강’⁵⁹⁾하여 김일성의 신격화를 시도하기도 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
다.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 우리는 이태준이, 신격화된 김일성을 ‘인간’
의 위치로 되돌려 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이 축지술이나
둔갑술을 한다는 대목에서 ‘칠복’에게 돈 생각은 어떤 것이었으며 말
을 더듬거린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그것은 축지술이나 둔갑술 같은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술이 탁월했기 때문이라는 인간적 능력을 말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일성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역시

58) 이태준, <고향길>, 『고향길』, 75~76쪽. 한설야의 작품과 이태준의 작품들을 단
순 비교할 의도는 없다. 한설야를 비롯하여 앞서 언급한 여러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김일성이 강조되어 있는 당시 북한 문학의 일반적 흐름과는 달리 월북
후 이태준의 작품들에서는 김일성의 서사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
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59)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 연구』, 일지사, 1991, 103~105쪽.

인간이란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신적인 능력의 소유자라거나, 설화적 영웅이라기보다 ‘보통 사람’보다는 능숙한 인간이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최근에는 ‘김일성과 체험이 전혀 없’고 ‘작가가 체험하지 않고 쓴 글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성 소설을 정말 쓸’ 수 없었다는 것, 이 때문에 이태준이 사상투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증언도 있다.⁶⁰⁾ 물론 이 증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미루어 보면 신빙성이 아주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준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의 작품에서는 한 번도 ‘김일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일성이 언급되는 위의 작품들 중 연대가 가장 뒤지는 것은 1950년 5월이라 기록해 놓은 <고향길>이며 이후의 작품에는 더 이상 김일성이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위의 인용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이태준은 ‘수령’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방공간에 있어서 간간히 나오던 「수령」이란 낱말도 이 시기(전쟁시기 - 인용자)에 오면 보편화’⁶¹⁾된다거나 ‘전쟁시기동안 김일성을 부르는 호칭의 하나였던 수령의 의미는 문학을 통해 더욱 구체화’⁶²⁾된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태준이 ‘수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 북한 문학에서 ‘수령’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작품은 이태준의 작품 외에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태준처럼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수행한 작가는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당시 북한 문학을 온전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만약 위와 같은 의문이 정당하다면 이태준이 행했던 정치적 숨바꼭질은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리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60) 김홍균, 「월북작가 이태준의 통곡의 가족사」, 『월간중앙』, 2000. 11, 288쪽.

61) 선우상렬, 『광복 후 북한 현대문학 연구』, 역락, 2002, 49쪽.

62) 신형기·오성호, 앞의 책, 150쪽.

월북 후 이태준 소설의 이와 같은 모습은 북한의 절대성에 쉽게 동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북한문학과는 다른 정치성을 작품 속에 숨겨둘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표면적으로는 북한문학의 흐름에 편승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와 일정하게 배치되는 생각을 지녔던 그가 취할 수 있는 정치적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와 같은 정치적 태도가 북한의 문단이나 정치권에 읽혀졌을 때 ‘반동작가’라는 굴레는 피할 수 없는 운명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4. 맺음말

리태준은 본래 전형적 부르주아 반동작가로서 일찍이 그는 프롤레타리아문학 예술 단체인 카프를 반대할 목적으로 반동 문학 단체인 ‘구인회’를 조직하였으며 여기서 소위 ‘순수문학’의 간판 밑에 ‘문학의 정치로부터의 자립’을 떠들면서 민족 해방투쟁의 무익성을 설교하였고 또한 색정주의적, 허무주의적 소설들로서 인간들에게 타락과 퇴폐적 감정을 선동하였다.⁶³⁾

월북작가 이태준, 북한에서 한때는 중요한 위치에 오르기도 했지만 1952년부터 불어닥친 숙청의 바람에서 그는 비켜설 수 없었다. 사상투쟁이라는 명목으로 과거를 추궁당하기도 했고 신문사의 교정원, 블록공장과 탄광의 노동자 등을 전전하다 신산스런 삶을 마감했어야 했던 그는 분명 우리 문학사 통각점(痛覺點)의 하나이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이와 같은 삶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 이유 때문인 것만으로 처리되어 왔고 그 결과 이태준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란 인

6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현대문학편, 민중환, 「이태준의 전기적 고찰」, 『상허문학회』, 『이태준 문학연구』, 깊은샘, 1993, 50쪽에서 재인용.

식이 음양으로 작용해 왔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태준은 북한 정치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닌 무력한 작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해방 직후 그가 보인 사상과 체제 선택은 분명 자신의 강하게 의지가 반영된 적극적 행위였었고 월북 후 이태준의 창작 활동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제외되어 왔던 『첫 전투』 및 『고향길』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태준은 분명 북한의 정치적 흐름과는 배치되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숨겨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정치적 흐름에 편승한 작가도 아니었으며, 극단적인 하나의 신념만을 맹종한 지식인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전쟁시기의 북한이라는 제약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문학과 정치성을 고민했던 인물이었다.

이와 같은 고민이 <먼지>와 같은 형태의 작품으로 나타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첫 전투』 및 『고향길』에서는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섬세한 묘사를 남겨 놓을 수 있게 한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그는 다른 작가들에 비해 폭력성과 잔인함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김일성의 형상을 축소시켜 놓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 북한 문단에서 찾기 힘든 것이었고 남로당과의 관계라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태준은 숙청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월북 후 이태준과 그의 문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어느 정도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별성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북한의 문학현실이 고려되어야만 하겠고 일반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차별성을 밝히는 작업 역시 월북 작가를 이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이태준, 북한문학, 김일성, <먼지>, 『첫 전투』, 『고향길』.

참고문헌

1. 자료

『原典 朝鮮文學』, 『文學』, 『女性』, 『文學藝術』, 『朝鮮文學』,
『고향길』, 재일본조선인 교육자동맹 문화부, 1952.
『이태준전집』, 깊은샘, 1995.

2. 참고논저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문학연구』, 일지사, 1991.
김우종,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2.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3.
김홍균, 「월북작가 이태준의 통곡의 가족사」, 『월간중앙』, 2000, 11.
남원진, 『남북한의 비평연구』, 역락, 200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전후문학연구』, 이회, 2002.
문학과 사상연구회, 『이태준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4.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2)』, 나남출판, 1996.
박헌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소설의 성격』, 소명출판, 1999.
상허문학회, 『이태준문학연구』, 깊은샘, 1993.
선우상렬, 『광복 후 북한 현대문학 연구』, 역락, 2002.
송인화, 『이태준 문학의 근대성』, 국학자료원, 2003.
신형기, 『북한소설의 이해』, 실천문학, 1996.
——, 『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항일혁명문학에서 주체문학까지』, 평민사,
2000.
유임하, 『기억의 심연 —한국소설과 분단의 현상학』, 이회, 2002.
유철상, 『한국전후소설연구』, 월인, 2002.
이 태, 『남부군』, 두레, 1988.
이갑기, 「두세계」, 『문학예술』, 1950. 3.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 사사연, 1986.

이기인 편, 『이태준』, 새미, 1996.

이명희, 『상허 이태준 문학세계』, 국학자료원, 1994.

이선영 · 김병민 · 김재용 편, 『현대북한문학 비평 자료집』, 태학사, 1993.

이재봉, 「해방기 이태준 소설 연구 —<해방전후> 및 <농토>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0.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장영우, 「문학과 정치」, 『이태준문학연구』, 깊은 샘, 1993.

전영선, 『북한의 문학과 예술』, 역락, 2004.

Abstract

Fictions of Lee Tae Jun and Political Hide-and-Seek after going over to North Korea

— Based on *First Battle* and *Going Home* —

Lee, Jae-Bong

An author who went over to North Korea, Lee Tae Jun, once rose to an importance position, but failed to escape the wind of purging, which began in 1952. He was pressed hard his past for ideological conflicts, and he certainly is one of zeniths of pains in the literature world after dying a hard life wandering from a proofreader of a newspaper publisher, worker of block factory or coal mine, and more.

However, he has been taken care of in North Korea for political reasons within North Korea, and is a true fact that the perception that Lee Tae Jun has was a sacrifice of ideology has operated good and bad. If so, Lee Tae Jun is no one but a powerless author being dragged around along the flow of politics in North Korea. But the ideologies and selection of social structure he showed after freedom was definitely an action that strongly reflects his intention, and a necessity to understand his creative works after going over to North Korea needs to be initiated in the same coherence.

From this perspective, Lee Tae Jun was sure to have hidden his political stand conflicting with the political flow of North Korea by analyzing *First Battle* and *Going Home*, which were excluded until now.

He was not an author who took advantage of North Korea's political flow, nor was he a blind man to obey to one extreme belief. He was rather a character to worried of his literature and politics in a limited environment, North Korea, during the wartime.

Such worries are shown in works like *Dust*, and the last works he left, *First Battle* and *Going Home* showed a delicate and complex description, which are hard to find in other works. Also, he did not emphasize on violence and cruelty like other authors, and minimized the form of Kim Il Sung. Such situations were hard to find the literature world of North Korea at that time, and can understand Lee Tae Jun's faith to become eliminated even after excluding the fact that he had relations with part of South Korea.

In this aspect, there must be some corrections in discussion until now concerning Lee Tae Jun and his works after going over to North Korea. The literature reality of North Korea not allowing individuality must be considered, and it can become a valuable means to under author who have gone over to North Korea while proving the differentiation considering the general flow.

Key words : Lee Tae Jun, litreature of North Korea, Kim Il Sung,
Dust, First Battle, Going Home.

논문투고일 : 3월 15일
심사완료일 : 4월 9일
게재결정일 : 4월 18일